

‘바로가기’ 한계 통합앱...점진적 발전 필요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지난해 8월 출시한 경희대학교 통합앱 서비스 대부분이 외부 웹사이트나 기존 앱으로 연결하는 사실상 ‘바로가기’ 기능에 그쳐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앱 기능 중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인포21 ▲학교 홈페이지 ▲중앙도서관 ▲e캠퍼스는 웹사이트 이동 혹은 해당 앱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 대출 현황 버튼을 누르면 통합앱을 벗어나 중앙도서관 앱으로 이동된다. 또 전자 출결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인포21 모바일 사이트

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앱 대부분 기능은 기존 앱과 브라우저를 연결하는 ‘바로가기’ 역할에 그쳐 아쉽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그중 앱 사용자 한동규(Hospitality경영학 2021) 씨는 “웹사이트나 앱을 직접 사용하는 것과 통합앱을 사용하는 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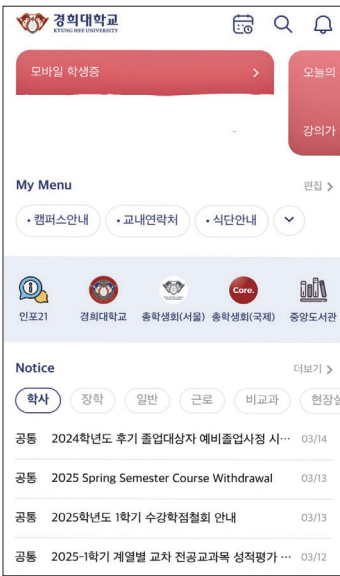
통합앱 서비스 담당 스마트캠퍼스사업단은 라이선스와 비용 문제로 웹사이트 및 타 앱으로의 연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스마트캠퍼스사업단 박내현 담당은 “통합앱만 있으면 별도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인포21의 경우 통합앱에

재하려면 시스템이 너무 커 통합앱 개발 비용의 100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e캠퍼스는 플랫폼을 사서 사용하는 중이기 때문에 라이선스 문제가 있어 탑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통합앱을 운영 중인 한국외대 또한 출시 초기에는 우리학교 통합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갔다. 한국외대 정보시스템팀 정승훈 씨는 “처음에는 대부분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서비스했지만, 지속적으로 통합 앱을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작은 서비스의 모바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말했다. 한국외대는 유지 보수 과정에서

우리학교 인포21에 해당하는 종합정보시스템, e캠퍼스에 해당하는 e클래스는 제외하고 점차 기능을 모바일로 이식했다. 특히 2019년 전자출결 기능 탑재 이후부터 현재 학생들에게 ‘필수 앱’의 위상을 차지했다. 정 씨는 “출시 초기에는 성적 조회, 푸시알림이 주였지만 전자출결, 식당 메뉴 그리고 비교과 과정과 상담 신청을 진행하는 ‘휴스 어빌리티’가 탑재된 이후로는 써야 하는 필수 앱이 됐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통합앱 또한 점진적인 보완을 계획 중이다. 박 담당은 “일단 앱을 출시하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 앱을 점차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예비군 등록 서



우리학교 통합앱 홈 화면 캡처본.

스가 추가됐으며 시설물 예약이나 분실물 찾기 서비스 역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로컬콘텐츠중점대학 선정 지역기반창업자 양성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국제】우리학교가 ‘2025 로컬콘텐츠중점대학’에 선정돼 사업비 2.7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활용하여 계절학기부터 관련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로컬콘텐츠중점대학 사업은 지역 문제 해결과 로컬 콘텐츠 개발역량을 갖춘 대학을 활용해 ‘지역기반 창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지원공단 주관으로,

총 29개 대학 중 6개 대학이 지난달 최종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사업기간은 총 2년이다. 대학은 1년 사업비를 지원받고, 첫 해 성과에 따라 2년 차 예산을 차등 지원받는다.

이에 마이크로디그리 기반 교과·비교과 로컬 브랜드 및 스타트업 교육프로그램이 오는 여름 계절학기부터 개설된다. 사업 구역은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이다. 로컬콘텐츠중점대학사업단장 박상희(시각디자인학) 교수는 “행궁동에는 사업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창업 공간과 자원이 많아 이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과 과정으로 ▲로컬

브랜드 매니지먼트 ▲스타트업 ▲로컬 IP ▲공간 디자인 등 지역 콘텐츠 브랜딩 관련 강의를 예정돼 있다. 박 교수는 “여름 방학 동안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2~3주간 생활한다”며 “지역 주민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의는 일부 단과대 전공과 후마 수업으로 편성된다. 단과대 중 현재 예술·디자인대학의 참여가 확정된 상태다.

비교과 과정은 지역 단체 및 지역 소상공인회와 협력하며, 대표적으로 ▲팝업스토어 운영 ▲행사 기획 ▲인턴십 등이 있다. 팝업스토어는



우리학교가 ‘2025 로컬콘텐츠중점대학’에 선정됐다. (사진=박상희 교수 제공)

학생이 직접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활동으로, 지역 축제와도 연계한다. 또 행궁동 공방 거리 야시장 행사 기획에 참여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외부 기관 지원도 있다. 수원시 미디어센터는 참여 학생을 위해 센터 내 미디어 편집실과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상권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로컬브랜드포럼’에서의 인턴십 기회도 재

학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로컬콘텐츠중점대학사업단은 사업을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행궁동을 실험 공간으로 삼아 자체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로컬 창업자 육성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브랜드까지 확장해 세계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